

조선전기 여성용 대금형(對襟形) 상의류에 관한 연구

-인천 석남동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송 미 경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팀 연구원

A Study on a Symmetric Collared Jackets in Early Joseon Dynasty

-Based on the Excavated Costumes of Seok-nam-dong, Incheon-

Mi-Kyung Song

Researcher, Curatorial Team, Gyunggi Provincial Museum

(2007. 5. 18 투고)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three pieces of jackets with a symmetric collar that was used to fill in the empty spaces in coffin excavated in 2004, from Seok-nam-dong, Nam-gu, Incheon.

The similarities of these three jackets are that the collars are symmetric, there are seops(the outer bodies to overlap the front sides of a jacket) with pleats, and openings on the side seam.

The No.2, and No.6 seem to be jegori to wear over others, and the fabrics used for No.2 is damask with cloud pattern, and damask with lotus flower pattern. For the No.4, satin was used and there is peacock pattern weaved on satin using golden thread. No.41 is unlined clothes made with Suk-cho(熟納), and the distinctive feature about this clothes is that the collar, and the neckline are very narrow.

The three jackets are similar with the recently reported clothes of Kim clan of Gang-leung (deducted to be buried in 1520), the collection of Seok Joo-sun Memorial Museum. Through this report, it provides information about some aspects of upper class women's clothes.

Key words: excavated costume(출토복식), a rectangular collar(목판깃), over-jacket(덧저고리), a symmetric collared jackets(대금형 상의)

I. 머리말

2004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 남구 석남동 도로 공사 현장에서 회격묘(灰隔墓)¹⁾가 발견되어, 인천광역시 역사박물관 학예연구팀이 유물을 수습하였다. 회격묘 안에 목관이 있었고 미라상태의 여성시신과 복식유물이 수습되었다. 수습된 유물은 총 50점으로, 복식류 16건 35점과 치관제구 13건 15점이다. 석남동 출토복식의 시기는 복식의 형태와 직물로 인해 15세기로 추정하였다.²⁾ 복식류는 여성용 단령 1점(No.1), 장옷 2점(No.34+17, 39), 대금형상의 3점(No.2, 6, 41), 저고리 5점(No.3, 5, 18, 32, 33), 적삼 1점(No.12), 장유 1점(No.28), 전단후장형(前短後長形) 상의 1점(No.29), 철릭 1점(No.38), 답호 1점(No.40), 치마 6점(No.5, 7, 8, 15, 16, 22), 말균 1점(No.9), 바지 5점(No.14, 19, 23, 24, 42), 소모자 2점(No.35, 36), 너울 1점(No.37), 주머니 1점(No.44), 버선 3점(No.45)이다.

이 석남동 회격묘 출토복식의 특징은 직금단(織金緞) 직물이 사용된 여성용 단령과 대금형 상의 그리고 원용문(圓龍紋)의 장옷과 말균(襪裙), 너울, 수(繡)주머니 등이 수습된 것이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의 무덤에서 수습되는 여성용 단령은 습의(襲衣)로 사용된 경우가 많으나, 석남동 분묘에서는 보공용으로 사용되었다. 이 단령에는 직성된 금선공작홍배가 있다. 장옷은 2점이 수습되었으며 1점은 습용(襲用)으로, 1점은 보공(補空)으로 사용되었다. No. 39 장옷의 직물은 원대(元代)의 운용팔보문단군(雲龍八寶紋緞裙)과 봉천모란문주군(鳳穿牡丹紋綉裙)³⁾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것이다. 저고리는 목판깃에 옆트임이 있으며 저고리 길이는 75~77cm인 여자 저고리 5점이 수습되었다. 그 외 적삼 1점과 남녀 복식의 구별이 불확실한 장유(長襦) 1점과 전장후단형(前短後短形) 상의(上衣) 1점도 있다. 복식의 형태와 직물을 통해 현재까지 보고된 중에서 가장 이른 연대의 유물로 추정된다.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금형 상의 3점으로 보고서 발간⁴⁾ 이후 문헌과 출토된 복식을 참고하여 연구결과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조선시대 초기 복식 가운데 깃이 앞 중심에서 겹쳐지지 않고 맞닿는, 좌우동형의 여자 덧저고리로 착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복식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5세기에 착용되었을 대금형 상의의 연구를 통하여 조선시대 전기 여성복식의 일면을 보완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II. 인천 석남동 출토 대금형(對襟形) 상의(上衣)의 명칭

이 복식들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출토복식 가운데 유사한 것이 보고된 바가 없었으나, 최근 공개된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 소장 강릉김씨(몰년 1520년 전후 추정)의 복식과 매우 유사하다. 석주선 기념박물관에서는 이들 복식을 형태로 구분하여 '맞깃 썬 위 접힘 저고리'와 '적삼'으로 명명⁵⁾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깃이 마주보고, 썬이 있는 좌우대칭형의 복식 특징을 나타내는 '대금형 상의'라고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의 문헌에는 저고리류에 관한 여러 명칭이 있으며 이에 따른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많은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⁶⁾ 특히 조선시대 초기의 기록인 세조 6년 예종비(睿宗妃) 가례시(嘉禮時) 명복(命服) 일습과 함께 기록된 상복(常服) 중 '大紅段好袖小襖子-好袖卽鶴袖虛基胸'의 기록이 있다.⁷⁾ 이를 기초하여 "小襖子는 곧 短赤古里를 의미하고 있는 好袖는 鶴袖이며, 胸이 虛한 것이라고 한 것은 鶴袖란 소매가 넓은 것을 말하며, 胸은 가슴을 의미하여 虛한 것은 여며지지 않은 對襟形의 옷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이러한 대금형의 덧저고리를 박성실은 호수(好袖, 胡袖), 학수(鶴袖)라고 추정하였다.⁸⁾ 호수, 학수는 궁중의 기록인 《가례도감의궤》⁹⁾나 《상방정례》에 왕비나 세자빈의 옷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재료는 필단(匹段)이나, 토주(吐紬)로 직금(織金) 홍배의 기록은 없어¹⁰⁾ 석남동 출토복식과는 차이가 있다.

출토복식에 있어서 명칭의 문제는 문헌과 유물을 대조하여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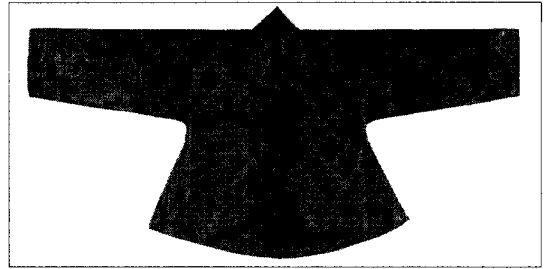
Ⅲ. 인천 석남동 출토 대금형 상의의 구성

인천 석남동에서 대금형 상의는 3점이 수습되었다. 이를 다시 트임과 옷 길이로 분류하면 옆트임이 있는 당의(唐衣)형¹¹⁾(No.2, No.6)과, 적삼에 가까운 상의(No.41)¹²⁾, 2종류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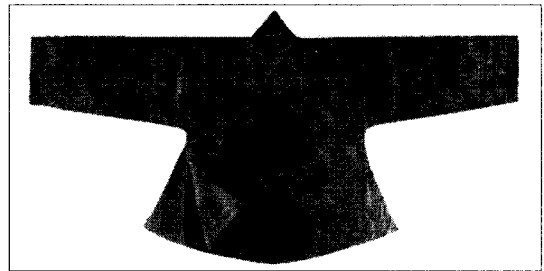
1. No.2 운문단 겹 대금형 상의

겉감의 길은 운문단(雲紋緞), 깃은 연화만초문단(蓮花蔓草紋緞)이며, 안감은 주(紬)로 만들었다. 깃은 서로 마주보는[對襟]형태의 목판깃이고 소매는 주름이 크게 2개 접혀 있고, 옆트임이 있는 좌우동형의 당의형으로, 소매의 모양은 수구로 갈수록 좁아지는 직수(直袖)이다. 옷고름과 동정은 떼어져 흔적만 남아 있는데, 옷고름 흔적으로 보아 앞에서 마주 보게 원삼처럼 여미는 여밈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30.5cm의 옆트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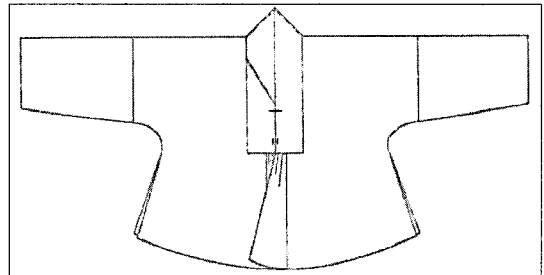
옷의 치수는 앞뒤 길이 79cm, 뒷품 63cm, 화장 86.5cm, 고대 18.5cm, 깃 나비 9cm, 깃 길이 97cm, 동정흔적 길이 43cm, 동정 나비 5.5cm, 진동 34.5cm, 수구 24cm이다.



<그림 1> No.2 대금형 상의 앞



<그림 2> No.2 대금형 상의 뒤



<그림 3> No.2 대금형 상의 실측도(앞)

<표 1> 대금형 상의의 치수 및 특징

분류	유물번호	No.2	No.6	No.41
소재		운문단(깃) 연화만초문단	무문단 금선공작홍배	속초
구성		겹	겹	홀
치수 (cm)	길이	79	77	60.5
	화장	86.5	83.5	98
	고대	18.5	19	9
	품	63	63	68
	진동	34.5	32.5	36.5
	수구	24	24	34.5
	옆트임	30.5	31.5	10.5
특징	고름	흔적 있음		흔적 없음
	동정	흔적 있음		있음
	형태	당의(唐衣) 형		적삼형
	용도	보공용		
	비고	사다리꼴의 소매 있음, 좌우동형		

1) 길

앞뒤 길이는 79cm로 동일하다. 45cm 나비의 옷감을 사용하여 어깨술기 없이 연결되어 있고, 넓은 나비의 옷감을 사용하여 'ㄱ' 자형 무¹³⁾인 결마기도 길에 포함되어 재단된 상태이다. 진동은 34.5cm이며, 진동아래 5.5cm 이하 30.5cm 트임이 있다. 도련에서 3.5cm 높이에 결·안감을 고정한 상침이 있다.

안감은 조선시대 입진왜란 전후의 옆이 트인 당의와 같은 구성으로 쇄과 무를 따로 재단하여 이었다. 16~17세기 당의와 같은 길이의 저고리의 안감 가운데 깃·쇄·무에 사용되는 감은 안감의 길보다 좋은 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¹⁴⁾이나 이 상의에는 무 부분에만 길에 사용된 것 보다 좋은 감을 썼다.

2) 깃과 동정

깃은 목판깃이며 마주 보는 깃[對襟型]으로 좌우가 대칭이다. 양쪽 모두 들어앉은 목판깃으로 깃 나비 9cm, 깃 길이 97cm(결깃 39.5cm 고대 18.5cm, 안깃39cm)이다. 결깃은 옷감이 모자랐는지 깃 중심에서 한 번 이었고, 안깃 쪽에서 15.5cm 길이 32.5cm에서 대각선으로 연결하였다. 양쪽 깃 끝에는 결감과 안감 모두 상침이 되어 있으며 깃 가장자리에서 0.5cm 들어와 고운 흠질로 파이핑 효과를 준 것 같은 바느질이 있다. 깃 가장자리에는 흠질 흔적이 2줄 정도 있어 옷을 다시 지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동정은 있었던 흔적만 남아있다. 결깃 끝에서 27.5cm, 안깃 끝에서 26.5cm 올라온 곳에 동정을 바느질했던 실 흔적이 있다. 동정 나비는 5.5cm이며 동정길이는 43cm로 추정된다.

3) 쇄

쇄도 깃과 마찬가지로 완전대칭형으로 결쇄와 안쇄가 같은 형태이다. 위 쇄 나비는 3.5cm, 아래 쇄 나비는 13cm, 쇄 길이는 38cm/38.5cm이다. 위 쇄 나비는 주름 잡기 전에는 8.5cm 이었지만 2개의 원 주름을 속으로 잡아 3.5cm이다. 쇄는 결쇄와 안쇄 모두 곧은 올이 길에 붙었고 시접은 가름술이다.

4) 소매

나비 38.3cm 전폭을 이어 소매를 만들었으며 소매는 진동에서 굴려 주었다. 진동은 34.5cm, 수구는 24cm로, 수구 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선형의 소매이다. 시접은 가름술이다.

5) 무

결감은 무를 별도로 재단한 것이 아닌, 길을 재단할 때 'ㄱ' 자형 무'를 함께 재단한 형태이다. 안감은 'ㄱ' 자형 무'를 만들어 붙였는데, 무의 윗변은 10cm, 아랫변 나비는 15.5cm, 무의 가장 좁은 곳은 1.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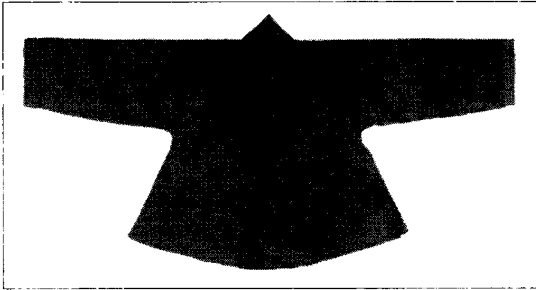
6) 고름

웃고름은 떼어진 상태로 흔적만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3곳에 웃고름 흔적이 있다. 2곳은 깃에 있는데, 깃 끝에서 결깃은 2cm, 안깃은 1.5cm 올라온 곳에 길이 2cm 가량의 흔적이 있고, 다른 1곳은 이고름 흔적이 있는 곳에서 24.5cm 올라온 곳, 즉 20.5cm에서 나비 2cm의 자색 고름 흔적이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 초중기 출토복식에 철릭의 소매나 반수의, 방령등의 여밈에 보이는 자색 매듭단추의 흔적이 아닌가 추측된다. 또 다른 한 곳은 진동 아래 옆선에 실의 흔적이 남아 있어 넓은 고름 또는 허리띠의 흔적으로 추측된다<그림 3 참조>. 이 외에 뒷길 진동에 아청색 실로 징근 흔적이 있다. 이 징근 실 흔적은 앞쇄 아래 11.5cm 내려온 곳에도 여러 곳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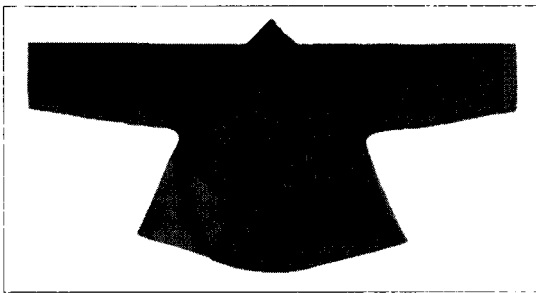
2. No.6 금선공작홍배직금단 겹 대금형 상의

무문단(無紋緞)에 홍배 부분을 금사로 직성한 금선공작홍배직금단(金線孔雀胸背織金緞) 당의(唐衣)형의 대금형(對襟型) 상의이다. 뒷면에는 화려한 금선공작홍배가 있으나, 앞길에는 우측 길에만 홍배의 일부가 있다. 동정과 고름은 떼어지고 없다. 31.5cm의 옆트임이 있다. 옷에 남아 있는 실의 흔적으로 미루어 허리띠가 있었던 옷이 아닌가 짐작된다. 직성된 홍배만 제외하면 앞에서 설명한 No.2 대금형 상의와 동일한 형태의 옷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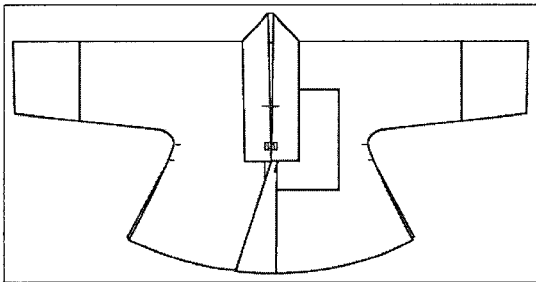
옷의 치수는 앞뒤 길이 77cm, 뒷폭 63cm, 화장 83.5cm, 고대 19cm, 깃 나비 9cm, 깃 길이 99cm, 동정흔적 길이 44cm 나비 5cm, 진동 32.5cm, 수구 24cm이다.



<그림 4> No.6 대금형 상의 앞



<그림 5> No.6 대금형 상의 뒤



<그림 6> No.6 대금형 상의 실측도(앞)

1) 길

나비 61.5cm~62cm의 넓은 전폭을 사용하여, 어깨솔기 없이 길이 77cm의 앞뒤 길이를 만들었다. 옷감은 무문단이며, 금선공작흉배가 직성되어 있다. 넓은 폭을 사용하여 '기자형 무'를 길에 포함하여

재단한 당의형으로 옆트임이 있다. 단(緞)으로 된 옷은 보통 뒷길의 시접이 가름솔인 것에 비해 이 상의의 시접은 입어서 오른쪽으로 갔으며, 뒷폭은 63cm이다. 진동은 32.5cm이며 진동에서 5cm 아래 31.5cm가 트여있다. 길은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며, 도련에서 곡선으로 굴린 당의 모양이다.

안감의 깃과 섶, 그리고 무 부분에는 길에 사용한 옷감보다 좋은 옷감을 사용하였다.

뒷길의 흉배는 깃 중심에서 13cm 내려온 곳에 배치되어 있다.

2) 깃과 동정

No. 2 상의와 같은 모양으로 깃은 목판형의 마주 보는 깃이며 대칭이다. 깃 나비 9cm, 깃 길이 99cm (겉깃 39cm, 고대 19cm, 안깃 41cm)이다. 겉깃과 안깃의 하단에는 박음질이 되어 있고, 안감의 깃 하단에는 3뿔 상침이 되어 있다. 깃의 가장자리에는 고운 흠질이 되어 있으며 동정이 달렸던 곳은 조금 성근 흠질이 되어있어 동정은 나비 5cm, 길이 44cm로 추정된다. 동정의 위치는 양쪽 끝으로부터 27.5cm 되는 곳이다.

3) 섶

좌우 대칭형 섶이 양쪽 깃 아래 달려있다. 위 섶 나비 2.3cm, 아래 섶 나비 13cm, 섶 길이는 38.3/37.5cm이다. 주름을 잡기 전의 위 섶 나비는 4.3cm이었으나 섶과 길이 이어지는 솔기를 접어서 나비 1cm의 주름을 1개를 잡았다. 섶의 시접은 가름솔이며 올 방향은 좌우 모두 곧은 올이 길에 달려있다.

4) 소매

길에 사용된 옷감이 나비 62cm의 넓은 옷감으로 길에서 소매가 포함되어 재단되어서 진동 솔기가 없다. 소매는 나비 21.5cm만 연결하여 화장은 83.5cm이며 겨드랑이 부분을 굴려 주었다(그림 6 참고). 진동은 32.5cm, 소매가 연결된 곳의 소매통은 26.5cm이며, 수구는 24cm로 수구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선형이다. 소매의 연결시접은 가름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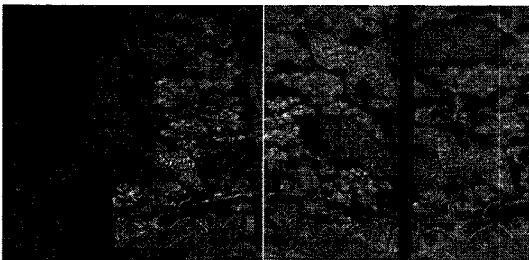
5) 무

겉감은 길에 ‘ㄱ자형 무’를 포함하여 재단하였다. 안감의 무를 보면 윗변은 9.5cm, 아랫변 나비 14.5cm, 무의 가장 좁은 곳은 1.3cm의 당의(唐衣)형으로 재단하였다.

6) 고름

웃고름은 모두 메어진 상태이나 자색 주(紬)로 만든 고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웃고름의 흔적은 길에 두 곳과 진동 아래에 한 곳이 있다. 이는 No.2 대금형 상의와 유사하여 비슷한 형태의 웃으로 짐작된다. 동정이 시작된 곳에서 1.5cm 내려온 곳에서 양쪽으로 자색 실 흔적이 1.5cm 가로로 남아 있어 쌍밀이 단추가 달려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곳으로부터 22.5cm 내려 온 곳에 길이 1.5cm 나비 0.7cm 정도의 자색 주로 만든 고름 흔적이 양쪽 길에 남아 있다(그림 6.7 참조). 그 외에도 쏘 아래 8cm 내려온 곳에 자색 실 흔적이 있으며 이와 나란한 곳에는 아청색 실 흔적이 있다. 또한 진동에 3~4cm 길이의 실 흔적이 있어, 진동아래에 허리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7) 흉배



〈그림 7〉 No.6 대금형 상의 흉배 앞뒤

흉배는 금선공작직금단(金線孔雀織金緞)이다. 뒷길은 무문단 바탕에 금선단 흉배가 1씩 좌우 길에 직성되어 있다. 뒷길의 흉배에는 공작 1쌍이 날개를 펴고, 수파문, 연꽃, 모란 그리고 운문이 가득 채워져 있다. 등술을 기준으로 1씩 직금을 하여 등술에서 합쳐진다. 앞길에는 우측에만 금선단이 있고 좌측에는 금선단이 없는데 옷감 자체의 직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흉배 전체길이는 34cm,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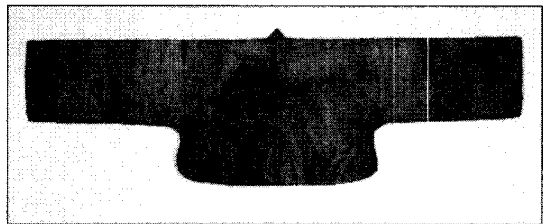
비 40cm이나 등술 중심부에서 좌우로 1.5~1.8cm 가량 무늬가 없는 부분이 있다.

공작흉배는 중국 문관 3품이 사용한 흉배로, 조선에서는 이등체강 원칙에 따라 문관 1품의 흉배로 사용되었다. 그림이나 수(繡)의 도안으로 화려한 수컷의 모습을 많이 이용하였으며 흉배에도 수컷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대명회전》의 흉배문양은 수컷 두 마리를 그려 놓은 것이며, 조선의 공작 흉배에서도 수컷 두 마리로 이루어진 흉배를 볼 수 있다.¹⁵⁾ 금사공작흉배는 유순정(柳順汀 1459~1512)의 초상화¹⁶⁾에서도 볼 수 있는데 흉배의 하단이 대(帶)에 가려 잘 보이지는 않으나, 구름과 모란·피석의 구도가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경기도박물관 소장인 임진왜란 전후의 시기로 추정되는 여성 단령에 부착된 금사직금공작흉배가 있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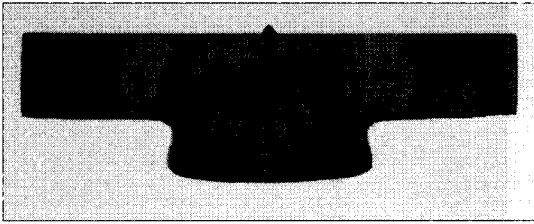
3. No.41 숙초 흘 대금형상의

숙초(熟綃) 흘 대금형(對襟型) 상의로 적삼(的衫)에 가까운 옷이다. 이 옷은 좌우 대칭형으로 주름 잡힌 사다리꼴의 쏘이 달려있으며, 고대가 매우 좁은 것이 특징이다. 동정이 달려있으며, 얇은 옷감에 맞게 곱게 말아 감침질하여 도련을 마감하여서, 도련 부분은 안으로 말려들어난 상태이며, 10.5cm 길이의 옆트임이 있다. No.2와 No.6과 비교하면 도련과 옆선이 직선인 점과 진동아래에 ‘ㄱ자형 무’가 달려 있는 점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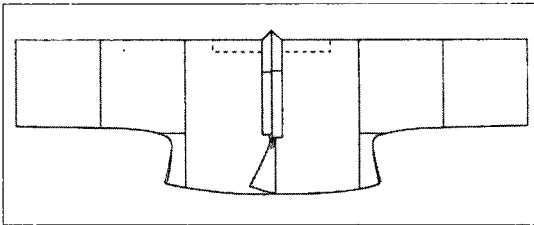
옷의 치수는 앞뒤 길이 60.5cm, 뒷폭 68cm, 화장 98cm, 깃 길이 84.5cm, 깃 나비 3.8cm, 고대 8cm, 동정 길이 33cm 나비 3.6cm, 진동 36.5cm, 수구 34.5cm이다.



〈그림 8〉 No.41 대금형 상의 앞



<그림 9> No.41 대금형 상의 뒤



<그림 10> No.41 대금형 상의 실측도 앞

1) 길

나비 30.5cm 전폭을 사용하여 어깨술기 없이 앞뒤 길을 만들었다. 옷감은 숙초(熟納)의 홑옷으로 어깨에는 일자형 바대가 앞뒤 길에 이어져 있다. 바대는 뒷길 쪽으로 2cm 앞길 쪽으로 1.5cm의 나비를 두었고, 등술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30.5cm의 옷감을 이어 만들었다. 'ㄱ'자형 무가 달려있고 깃과 셔를 제외하면 옆트임이 있는 단(短)저고리와 비슷한 형태이다. 길이는 60.5cm, 뒷폭은 68cm이다. 등술은 시접 0.2cm두고 가름술로 처리하였다.

2) 깃과 동정

깃은 목판형의 마주보는 깃으로 깃 나비는 3.8cm, 깃 길이 84.5cm(겉깃 38.5cm, 고대 8cm, 안깃 38cm)이다. 겉깃의 하단은 나비 3.2cm로 깃나비가 3.8cm 인 것과 비교하면 조금 줄어든 형태이다. 겉깃과 안깃의 하단에는 박음질이 되어 있으며 깃 안쪽은 고운 감침질로 고정하였다. 겉깃과 안깃은 약 1/2정도 겹친다. 적삼에 가까운 이 대금형 상의의 특징은 8cm의 좁은 고대에 있으며 목 뒤에 0.2cm 아래로 정도 굴려서 깃을 앉혔다.

동정은 겉깃 하단부에서부터 26.3cm 올라간 위치와 안깃 하단부에서 25.2cm 올라간 위치에 달려 있

다. 동정의 소재는 주(紬)이고, 나비는 3.6cm, 길이는 33cm이며 뒤 중심에서 한 번 이었다.

3) 셔

좌우대칭형 셔이 양쪽 깃 아래 달려있다. 위 셔 나비 1cm, 아래 셔 나비 10.5cm, 셔 길이는 20.5/22cm이다. 위 셔는 4cm 나비 약 1cm의 주름 2개를 잡아 셔 나비를 1cm로 만들었다. 셔의 모양은 No.2, No.6 대금형 저고리에서처럼 약간 배가 나온 사다리꼴형태이다. 겉셔의 시접은 길 쪽으로 보냈고, 옷감의 방향은 곧은 울이 길에 달려있다. 안셔의 시접은 가름술이며, 옷감의 방향은 겉셔와 같은 곧은 울이 길에 달려있다. 셔와 도련은 매우 곱게 말아 감침질을 하였다.

4) 소매

화장은 98cm이며 소매는 중간에 한 번 이었는데, 길에 연결된 소매나비는 34cm이고 수구 쪽 소매 나비는 33.5cm이다. 진동은 36.5cm이고 소매 중간 술기 부분의 소매통과 수구는 동일하게 34.5cm이다. 진동과 소매 연결은 가름술이며, 수구는 매우 곱게 말아 감침으로 처리하였으며, 배래는 통술이다.

5) 무

길에 'ㄱ'자형 무가 달려있으며, 10.5cm의 트임이 있다. 무는 높이 19cm, 윗변 11cm, 아랫변 8cm, 무의 가장 좁은 곳은 5cm이다. 무와 길의 연결은 통술로, 무의 윗변은 싹술로 처리하였으며, 도련은 곱게 말아 감침질을 하였다. 홑옷이며, 매우 가늘게 말아 감쳐서 도련 부분은 안으로 말려 들어간 상태이다.

6) 고름

웃고름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No. 41 석남동 출토 상의와 비슷한 형태의 웃인 중국 원(元)시대의 출토복식에는 고름이 있어 교임형으로 입을 수 있게 만든 것¹⁸⁾을 생각하면, 고름에 따라 옷의 여밈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IV. 인천 석남동 출토 대금형 상의의 특징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들 대금형 상의의 공통점을 보면 ① 깃은 완전히 들어앉은 목판깃으로 깃이 마주보며, ② 깃 아래에 주름 잡힌 사다리꼴의 셔이 달려 있고 ③ 옆트임이 있으며 ④ 좌우 대칭형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천 석남동 출토 대금형 상의와 전체적인 형태에서 유사한 복식을 최근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에서 공개하였다.¹⁹⁾ No.2, No.4 대금형 상의와 비교하면 사용된 직물과 깃의 여밈에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형태는 같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No.41 대금형 상의와 유사한 복식은 깃과 셔의 형태는 같지만 길이와 품, 결마기가 없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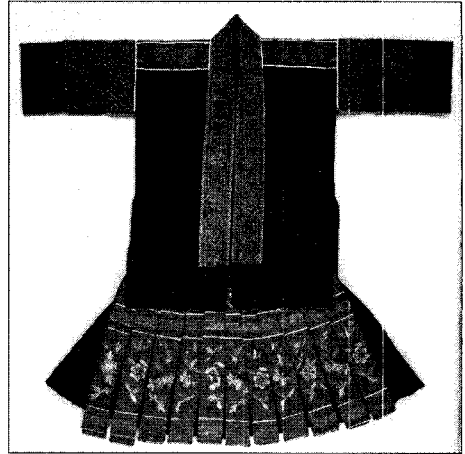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출토된 복식 중에 인천 석남동 출토복식의 형태와 유사한 복식의 깃과 셔 그리고 흉배를 비교하기로 한다.

1. 깃

인천 석남동 출토 대금형 상의의 깃 모양은 목판깃으로 고대는 깃 나비의 2배와 동일하다. 깃은 여밈이 없이 완전히 서로 마주 보는 형태로, 원삼이나 배자에서 흔히 보이는 깃과는 다른 형태이다. 방령이나 원삼, 배자의 깃은 깃 부분이 맞닿으면서 깃의 파임이 있으나, 석남동 출토 대금형 상의는 깃의 파임도 없으며, 깃머리 부분이 완전히 맞닿는다.

석남동 출토 당의(唐衣)형 대금형상의(No.2, No.6)는 깃 나비가 9cm로 넓은 편이나, 적삼형 대금형상의(No.41)의 깃 나비는 3.8cm이다. No.2과 No.6의 대금형 상의와 깃 모양이 유사한 복식은 남송(南宋) 시대의 출토복식²⁰⁾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중국의 명 만력제(1573~1619) 시대의 자수용포(刺繡龍袍)²¹⁾도 동일한 형태의 깃 모양이다. 또한 현재도 중국 소수민족인 묘족 복식에서 착용하고 있는 상의와 비슷한 깃 모양의 옷이다(그림 11). 석남동 출토 대금형 상의에는 앞서서도 언급한 매듭단추흔적

과 넓은 옷고름이 달려 있었던 흔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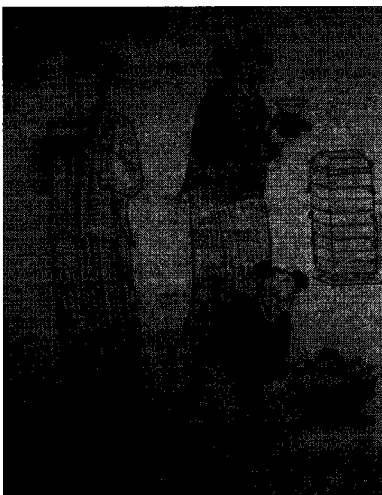
〈그림 11〉 國立歷史博物館(1998). 邊域明珠 苗族服飾特典-黔東南. 臺北: 國立歷史博物館 出版社, p. 114.



〈그림 12〉 黃能馥, 陳娟娟 (2002). 中國絲綢科技藝術七千年. 北京: 中國紡織出版社, p. 161.

적삼형 대금형 상의(No.41)는 깃이 3.8cm로 고대가 매우 좁은 것이 특징이다. 옷감은 숙초로 만든 홉옷으로 바느질이 매우 곱다. No. 41 대금형 상의와 깃 모양이 유사한 형태는 조선전기인 15세기의 유물로 알려진 상원사 목조 문수동자좌상 복장 생명주적삼(보물 제793-17호)²²⁾이 있다. 이 유물은 고대가 좁은 것도 비슷하지만 깃의 하단부가 겹치며 셔의 모양이 석남동 유물과 다르다. 좁은 깃의 옷은 중국 남송(南宋) 시대의 유물인 주우(周瑠)묘 출토 화훼문사합령단삼(花卉紋紗合領單衫)²³⁾(그림 12), 원(元)시대의 복식유물²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남송시대와 원의 유물은 깃 모양을 제

의하고는, 형태가 다른 옆트임이 있는 단(短)저고리형 또는 배자이다. 원나라 시대의 벽화나 조상(彫像)에서도 대금형 상의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소매 길이가 짧은 배자형이다. 원나라 유물인 단(短)저고리는 품이 넓고 겨드랑이 아래에 옷고름이 있어 교차하여 교임형으로 입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No.41 대금형 상의는 옷고름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고대가 좁은 No.41 대금형상의와 유사한 형태의 옷은 현재도 중국의 소수민족인 묘족의 복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깃이 좁고 대금형이며, 통수(筒袖)인 상의로 깃을 그대로 두거나, 여머서 교임식(交衽式)으로 착용하기도 한다.²⁵⁾ No.41 대금형 상의와 비슷한 형태의 깃을 가진 복식을 입은 요(遼)시대의 도용²⁶⁾이 있다. 물론 이 도용에서 나타나 있는 복식의 묘사에는 섶은 없는 옷이나 깃이 좁고 옆트임이 있다. 이 외에도 요(遼)시대의 벽화²⁷⁾에 얇은 옷으로 느껴지는 옆트임의 상의(그림 13)를 볼 수 있다.



〈그림 13〉 河北省文物研究所 (2001).
宣化遼墓, (下). 北京: 文物出版社,
彩板 五.

2. 섶

인천 석남동 대금형 상의 3점에는 모두 깃 아래에 주름 잡힌 사다리꼴의 섶이 달려 있다. 석남동

출토 상의와 유사한 이러한 섶의 형태는 조선시대 초중기 분묘에서 출토되는 방령형상의(方領形上衣)²⁸⁾라고 명명된 복식과 액주름의 섶에서 관찰되기도 한다. 방령형 상의의 섶에 주름이 잡힌 것²⁹⁾ 외에, 이와 같은 섶 모양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제주고씨 합장묘에서 출토된 적삼³⁰⁾과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 소장 벽진이씨 방령액주름³¹⁾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석남동 유물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복식이 최근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에서 공개되었다.

3. 흥배

No.4 대금형 상의에는 직성된 직금 흥배가 있다. 직성 직금 흥배가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흥배의 문양은 조선시대 문관 1품 흥배인 공작(孔雀)문양이다. 중국 명대(明代) 복식 가운데 직성된 직금 흥배가 달린 저고리는 발굴 보고되었다.³²⁾³³⁾ 또한 흥배가 부착된 상의를 입고 있는 모습의 명대 초상화³⁴⁾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복식은 교임형의 작은 당코 깃의 저고리이나, 금번 석남동 복식은 대금형이며, 소매도 중국의 복식이 약간 둥근 배래이거나, 오프려 진 것에 비해 석남동 복식은 사선형의 소매인 것이 다르다.

V. 결론

15세기의 여성복식으로 추정되는 인천광역시 남구 석남동 출토복식 가운데 대금형 상의 3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금형 상의는 출토복식의 시대를 가늠할 수 있는 특징적인 옷으로 2점은 좌우대칭형에 들어앉은 목판깃이며, 주름이 잡힌 섶이 있고, 옆트임이 있는 당의(唐衣)형이다. 이 가운데 1점(No.6)은 무문단에 흥배 부분은 공작금선단이 직성되어 사용되었다. 1점(No.2)은 형태와 크기는 금선단이 있는 유물과 거의 같으나 운문단이 사용된 점이 다르다. 다른 1점(No.41)은 깃과 고대가 매우 좁으며, 트임도 짧은 속초의 홑옷으로 적삼(的衫)류이다.

대금형 상의는 여성용으로 생각되며 No.2와 No.6의 형태는 거의 유사하여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이며, No.41은 얇은 속초로 된 옷으로 적삼이나 배자와 같은 옷으로 추정된다. 이는 동일한 묘에서 이 대금형 상의와 비슷한 치수의 장식이 없는 저고리 6점이 수습되었는데, 이 저고리보다는 대금형 상의가 옷감이 화려하고, 특히 No.6 상의는 무문단에 직금공작흉배가 직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작흉배는 조선시대 전기 초상화에 자주 보이며, 문관 1품의 흉배로 사용되어 피장자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복식 외에 공작흉배직성금선단의 여성 단령도 보공용으로 사용되어, 피장자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보낸 부의(賻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복식은 정확한 착장 모습을 알 수는 없으나, 깃은 맞닿으며, 매듭단추를 사용하여 여몄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 위에 넓은 옷고름으로 둘러싼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에서 물년을 1520년 전후로 추정한 강릉김씨의 복식을 수습하였는데, 인천 석남동 출토복식과 유사한 형태의 복식이 출토되었다. 앞으로 발굴에 따라 석남동 출토 복식의 정확한 시대와 명칭 그리고 피장자의 신분 등도 보완 될 가능성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김우림 (2006). 서울·경기지역의 조선시대 사대부 모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57.
- 2) 조효숙, 배순화 (2005). 출토복식의 직물고찰,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 인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p. 103.
- 3) 中國美術全集·工藝美術編 7 印染織繡(下) (1993). 北京: 文物出版社, p. 9.
- 4)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5).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 인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5) 고부자 (2007). 大田 出土 江陵 金氏(女, 朝鮮 前期) 遺物. 韓國服飾, 第二十五號. pp. 46-49, p. 52.
- 6) 황유선 (1999). 조선시대 저고리類 명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世祖實錄 世祖 6年 4月 乙卯: 박성실 (1992). 위의 글, p. 452에서 재인용.
- 8) 박성실 (1992). 조선전기출토복식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452.

- 9) 호수(胡袖)의 기록은 仁祖莊烈后 嘉禮都監儀軌 (1638), 昭顯世子 嘉禮都監儀軌 (1627)에 기록되어 있다.
- 10) 김향미 (2004). 마고자와 대금형 상의류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9-42.
- 11) 2006년 이전의 보고서에는 여자 저고리를 분류할 때 길이와 트임의 유무로 단(短), 중(中), 장(長)저고리로 분류하여 석남동 출토 대금형 상의(No.2, No.4)는 장저고리의 유형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2006년 문화재청 <문화재대관>의 분류에 따라 겹저고리 또는 당의(唐衣)의 고형(固形)일 것으로 생각된다.
- 12) No.41 대금형 상의는 깃의 나비와 홀웃인 점 등으로 볼 때, 임진왜란 이후 조선시대 중기까지 착용되었던 적삼류에 가까워 적삼형으로 분류하였다.
- 13) 이은주 (2000). 포항 내단지 장기 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안동대학교박물관, p. 44.
- 14) 조선시대 중기 장저고리[唐衣]의 안감은 트임이 있는 부분의 옷감은 길에 사용된 것보다 좋은 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경우는 해인사소장 중 궁 유씨의 당의의 안감에서 찾을 수 있다.
- 15) 하명은 (2004). 조선시대 문관 흉배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2.
- 16) 경기도박물관 (2004). 명품선. 경기도박물관, p. 108.
- 17) 경기도박물관 (2005). 연안김씨 묘 출토복식. 경기도박물관, p. 19.
- 18) 趙豐, 金琳 主編 (2005). 黃金·絲綢·青花瓷. 香港: 藝紗堂/服飾出版, pp. 76-84.
- 19) 고부자 (2007). 앞의 책, p. 53.
- 20) 黃能馥, 陳娟娟 (2002). 中國絲綢科技藝術七千年. 北京: 中國紡織出版社, pp. 166-171.
- 21) 香港藝術館編 (1995). 錦繡羅衣巧天工. 香港: Hong Kong Museum of Art, pp. 202-203.
- 22) 월정사 성보 박물관 (2004). 유물로 보는 오대산 문수신앙. 월정사 성보 박물관, pp. 60-61.
- 23) 黃能馥, 陳娟娟 (2002). 앞의 책, p. 161.
- 24) 趙豐, 金琳 主編 (2005). 앞의 책, pp. 76-84.
- 25) 國立歷史博物館 (1998). 邊域明珠 苗族服飾特典·黔東南. 臺北: 國立歷史博物館 出版社, pp. 114-115.
- 26) 黃能馥, 陳娟娟 (1999). 中華歷代服飾藝術. 北京: 中國旅遊出版社, p. 288.
- 27) 河北省文物研究所 (2001). 宣化遼墓, (下). 北京: 文物出版社, 彩板 五.
- 28) 홍나영 (1999). 後短 方領半臂에 관한 고찰. 服飾, 44, pp. 117-129.
- 29)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1999). 韓國服飾 第十七號.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p. 78.
- 30)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1997). 韓國服飾 第十五號.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pp. 84-85.
- 31) 박성실 (1992). 앞의 글, p. 253.
- 32) 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 (2003, 2). 南昌明宇靖王夫人吳氏墓發掘簡報. 文物, pp. 19-34.
- 33) 北京文物精髓大系編委員會, 北京市文物局 編. 織繡卷. 北京: 文物出版社, p. 68, p. 72.
- 34) 아주문화학회 (2003). 위대한 얼굴. 아주문화학회, p. 22.